

쥐뿔도 모르면서 탕자탕자한다면



이홍재의
세상만사

주필

(오늘의 이글에는 청소년이 읽기에 다소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다만 학문적인 호기심 차원의 접근은 허용하며, 19세 미만의 경우 부모님의 적절한 지도가 필요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도 모르는 놈이 송이버섯 따러 왔다’는 말이 있다. 남성의 생식기와 송이버섯의 생김새가 비슷하다는 데서 착안한 말이다. ‘불알도 모르는 놈이 탕자탕자한다’는 말도 있다. 이 또한 불알과 탕자의 비슷한 모양새에서 생겨난 것이다. (‘함부로 씨부러가리다’는 뜻의 ‘탕자탕자한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유래한 듯하다.) 하여튼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야는 척하거나 잘난 척할 때’ 흔히 우리는 이런 속언을 사용한다. 아마도 아주 오래 전에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이라면 ‘×도 모

르는 놈이 탕자탕자한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것이다. 이는 ‘쥐뿔도 모르면서 아는 체한다’란 말의 원색적인 표현이다. 한데 쥐에 뿔이 있을 리 없다. 그렇다면 ‘쥐뿔’은 도대체 무엇을 지칭하는 말일까. 일단 관련 설화(說話)를 보자.

옛날 어떤 마을에 한 남자가 살았는데 한가할 때면 뒷방에서 새끼를 꼬았다. 그때마다 얼렁저리는 생쥐에게 먹이를 주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외출을 했다가 돌아오니 자기와 똑같이 생긴 남자가 안방에 앉아 있지 않은가? 도대체 누가 진짜 주인인지 알 수가 없었다. 집안 식구들은 몇 가지 질문을 한 뒤 정확한 대답을 하는 사람을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윽고 부인이 부엌의 그릇수를 물었을 때 진짜 주인은 대답하지 못한 대신 진짜 주인은 그릇과 수저의 수까지 정확하게 알아맞히는 것이었다.

사람으로 변한 생쥐 이야기

결국 자신의 집에서 쫓겨난 그는 어느 도승을 만나 억울한 신세를 털어놓게 된다. 스님은 ‘당신이 먹거리를 준 쥐가 사람으로 변해 영물(靈物)이 된 것’이라고 일러 주면서 고양이 한 마리를 주었다. 그

는 집에 돌아와 고양이를 풀어놓았고, 목을 물린 까닭 주인은 다시 생쥐로 변해 짝 짝거렸다. 그 날 밤 술상을 들고 온 부인은 남편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남편은 껄껄 웃으면서 말했다. “그래, 당신은 쥐뿔도 몰랐단 말이요?” 그리 오래 함께 결혼 생활을 했으면서도 남편의 거시기와 쥐의 거시기도 구별하지 못했다는 판잔이다.

이런 옛날이야기에 나오는 ‘쥐뿔’은 ‘쥐뿔’이 변한 말이며 ‘뿔’은 사전에는 나오지 않지만 수컷의 성기를 뜻하는 옛 우리말이다. 이는 현대 언어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불두덩’ (남자 생식기 언저리에 있는 불룩한 부분. 여자의 그것 등. ‘×두덩’)이나 ‘불거웃’ (생식기 주변에 난 털. 여자의 그것은 ‘×거웃’) 등이 바로 그것이다. 남근(男根) 밑의 ‘불알’도 ‘뿔’과 ‘알’의 합성어다.

지금이야 뜻을 잘 모르니 그렇지 ‘쥐의 성기’라는 의미가 뚜렷했던 옛날에는 ‘쥐뿔’을 함부로 입에 담자니 좀 민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뿔’과 발음이 비슷한 데다 ‘길쭉하게 솟아 있다’는 점에서 외형상 의미도 비슷한 ‘뿔’로 대체해 ‘쥐뿔’이란 말을 사용하게 되었을 것이다.

쥐뿔은 아주 보잘것없거나 규모가 작은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쥐뿔도 없는 주제에 큰소리만 친다.” “쥐뿔만도 못한 주제에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예쁜 여자 아니면 쳐다보지 않는다.” 이러한 표현들이 가능한 것도 바로 쥐×의 ‘아주 작고 보잘 것 없음’에 기인한 것일 게다. 쥐의 몸체 일부를 이용한 비유는 이밖에도 한둘이 아니다. ‘쥐꼬리만 한 월급’이란 표현이 대표적이며 속담에도 쥐는 자주 등장한다.

‘쥐구멍에도 별빛 날 있다’ ‘쥐도 궁하면 고양이를 본다’ ‘독 안에 든 쥐’ ‘쥐구멍에 홍삼문 세우겠다’ (쓸데없는 겉치레를 요란하게 하는 경우를 비유하는 말) 등 등. 우리말에 쥐에 관한 다양한 비유와 속담이 있다는 건 그만큼 쥐와 우리 인간 생활의 밀접함을 말해 주는 것이다.

경자년(庚子年) 흰쥐의 해가 밝은 지도 벌써 10여 일 이상 지났다. 다 알다시피 쥐는 12지(支)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한다. 쥐가 열두 동물 가운데 맨 앞자리에 놓인 연유로는 여러 이야기가 있다. 그중 발가락 개수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설이 유력하다. 음양 사상에 따라 홀수 발가락과 짝수 발가락을 가진 동물이 번갈아 나오도록 배치했는데, 앞발가락이 네 개요

뒷발가락이 다섯 개로 음양을 겸비한 유일한 동물인 쥐가 맨 앞에 서게 됐다는 것이다.

한데 이런 설화도 있다. 옛날 옛적 옥황상제가 하늘의 문에 빨리 도착하는 동물 순으로 지위를 주고자 경주를 벌였다. 우직한 소는 경주에서 우승하기 위해 열심히 훈련했는데, 경기 당일 소의 등에 올라올라만 쥐는 소가 결승선에 다다르기 직전 재빨리 뛰어내려 1등을 차지했다는 거다. 그러나 이는 그저 쥐의 영리함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일 뿐이다.

총선, 진짜 주인을 경계하라

쥐는 다산(多産)의 상징이기도 하다. 쥐 한 쌍이 1년이면 800마리까지 번식시킬 수 있다고 한다. 역학에서 쥐를 뜻하는 단어인 ‘서’ (鼠) 대신 ‘자’ (子)를 쓰게 된 것도 쥐가 워낙 자손을 번창시키는 다산의 동물이라서 새끼 칠 ‘자’ (子)로 대체했기 때문이다. 쥐는 ‘서생원’ (鼠生員)이라 해서 열두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과 같은 예우를 받는 동물이다. 지혜롭고 근면하고 예지력까지 갖춘 덕일 것이다.

그러나 쥐는 대대로 우리 실생활에서

출발반은 존재했다. 병을 옮기고, 곡식을 훔치고, 책이나 가구를 갇아 먹는 등 인간에 끼친 피해가 너무 큰 탓이다. 그런 만큼 쥐를 간신이나 도둑 등으로 묘사한 속담이나 설화도 많다. ‘옹고집전’ 역시 사람의 손발톱을 먹은 쥐가 인간으로 둔갑해 진짜 주인을 몰아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비굴하거나 교활하고 간사한 무리를 흔히 ‘쥐새끼’ 같다고 표현한다.

쥐의 해인 올해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이기도 하다. 총선이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뿔지는 구멍 파서 어린 낱알 숨겨 두고/ 집쥐는 온갖 물건 안 훔치는 것이 없어/ 백성들은 쥐 등쌀에 나날이 초췌해 가고/ 기름 말라 피 말라 피골까지 말랐다네.” 다산 정약용의 한탄이다.

다가오는 이번 선거에서는 집쥐·뿔뿔 할 것 없이 그런 쥐새끼 같은 이들이 우리 살림을 말짱다고 나오는 것은 아닌지 두루두루 잘 살펴야 할 것이다. 그런 이들은 끝내 우리 국민의 양식을 아깝아 아깝다 값 아 먹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날 내 집 손가락 개수만 외운 뒤 갑자기 나타나 주인 노릇을 하려는 자는 없는지 눈을 부릅뜨고 살핍 일이다.

광주 문화예술행사 잇단 취소·연기 ‘코로나 직격탄’

문화회관 예술단원 전원출근 금지 정기공연·홍콩필하모닉 무대 취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에 따라 광주지역 문화예술 행사가 잇따라 취소, 연기되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 5일 광주문화예술회관(관장 성현철)이 하 문화회관은 광주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4일 오후 3시부터 예술단원 전원의 출근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문화회관에 따르면 예술단 소속 공무원이 아내가 입원했던 21세기병원에서 간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가 격리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문화회관은 이달과 다음 달 계획된 기획공연을 비롯해 국악상설공연과 시립예술단 정기공연, 찾아가는 예술단 프로그램 등을 취소했다. 취소된 공연은 기획공연 ‘악 판 츠베덴&홍콩필하모닉 오케스트라’ (3월 13일), 광주시립교향악단의 11시 클래식 비엔나의 아침 (3월 10일),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51회 정기연주회 (3월 26일), 광주시립발레단 (예술감독 최태지) 창작발레 시리즈 ‘오월, 평화의 첫 걸음’ (3월13일~14일) 등이다. 또 광주시립합창단 제183회 정기연주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음악회 -평화를 위한 미사’ (3월 19일),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24회 정기연주회 ‘빛

을 음악회’ (3월 26일),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 131회 정기공연 ‘봄의 향연’ (3월 28일)도 만날 수 없게 됐다. 광주시립창극단과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 참여해 주 5회 선보이는 광주국악상설공연도 중단됐으며, 엠마우스복지관과 동구장애인복지관 방문 예정이던 ‘2020 찾아가는 예술단’ 2월 일정도 취소됐다.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 역시 13일로 예정된 앙상블 밀레 창단 연주회와 24일 콰르텟 노이 정기 연주회는 연기됐고, 16일 조혜원 제자 연주회, 21일 김윤주 제자 연주회는 취소됐다고 밝혔다.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윤기)이 8일

전통문화관에서 열 예정인 ‘2020 무등 풍류연 정월 대보름 한마당’, 같은날 빛고를 시민문화관에서 펼쳐질 제19회 갯디엘정 기공연도 취소됐다. 전남도립국악단은 매주 토요일 남도소리유희터 공연장에서 열리는 토요일공연이 잠정취소됐다고 홈페이지에 안내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 또한 어린이문화원에서 진행하는 체험이나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했다. 어린이 도서관은 종전대로 이용 가능하다. 어린이문화원을 제외한 향후 프로그램 진행 여부는 질병관리본부 대응에 따라 오는 12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매일 마지막주 열리는 브런치 콘서트(26일), 어린이 창작극 공연 ‘나무 아이’ (27일~3월1일) 등 2개가 예정돼 있다. /전재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전남도 中 방문한 무안공항 입국자 24명 모니터링

우한 입국자 11명 격리 해제 전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방역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무안공항 입국자 가운데 24명에 대해 모니터링하

고 있으며, 중국 우한 입국자 11명에 대해서는 모두 격리를 해제했다. 전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6·18번째 확진자가 광주에서 발생되면서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지만

‘심각’ 수준에 준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확진환자 발생 이후 중국 입국자 중 의심환자 4명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직접 확인한 무안국제공항 입국자 가운데 중국 방문력이 있는 25명 중 1명은 격리를 해제하고, 24명은 계속

모니터링중이다. 확진자와 접촉한 도민 2명은 자가격리 중이다. 전남도는 질병관리본부 신속대응팀을 비롯해 내·사·군·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확진자 이동 경로와 접촉자 역학조사를 진행 중인 질병관리본부와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바깥 상황 지켜보는 환자들 국내 16번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휴원한 광주 21세기병원 건물에서 5일 환자들이 창문을 통해 바깥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2020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30기)	광주교육대학교(21기)
모집/과정	· 금요일 오전반 2020. 3. 6(금) 09:10 (종급반) · 토요일 오전반 2020. 3. 7(토) 09:10 (고급반)	· 금요일 오후반 2020. 3. 6(금) 14:10 (종급반) · 토요일 오후반 2020. 3. 7(토) 14:10 (고급반)
모집기간	2020. 1. 23(목) ~ 3. 7(토)	
수업기간	2020. 3. 6(금) ~ 2020. 8. 8(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9:10 ~ 13:00 · 오후반 14:10 ~ 18:00	
수료후특전	·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 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 학교 (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 ~ 사법) 취득기회 부여	
수강료	₩ 360,000(예금주 : 광주여대) · 광주은행 : 148-107-307803	₩ 360,000(예금주 : 광주교대) · 국민은행 : 773901-01-476736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문의 : 062)950-3582-4 · 지도교수(선병공) : 010-3614-4160	· 문의 : 062)520-4243 · 지도교수(선병공) :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지난 20년간 14,000여명이 수강한 명강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와 재테크 강의

전임강사: 정영수 경영학박사(부동산 전공)

전남대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
평생교육공로 : “교육부장관상” 수상
MBC-TV방송국 경제특강
공무원연수원 등 500회 이상 초청특강

특전
자격취득 희망시 국가공인 빌딩경영관리사, 분양상담사, 부동산관리분석사 자격취득토록 책임지도하며 수료 후 모의예 결정하여 지도함

강의기간 : 2020년 3월~6월(15주)
정원 : 선착순 50명 마감

조선대 평생교육원
- 부동산컨설팅과 재테크 매주(수) 19시~21시
- 접수처 : 062)230-7700~2

광주교육대 평생교육원(무료주차)
- 부동산 실전경매 매주(목) 19시~21시
- 접수처 : 062)520-4243

부동산강의 및 부동산경매 관련 상담

010-5613-1808 정영수 박사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 과정)

- 일 시 : 2020. 3. 3(화) 오후 7시
-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 2층)
- 수강료 : 풍수+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 2020. 2. 25(화) 오후 7시.
-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 00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전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